



미 증시, 테슬라(-9.7%) 급락 등으로 나스닥 중심 약세

미국 증시 리뷰

20 일(목) 미국 증시는 존슨앤존슨(+6.1%) 등 헬스케어주들의 호실적에도, 양호한 실업 및 주택 지표 결과 속 테슬라(-9.7%), 넷플릭스(-8.4%)의 부진한 실적 발표로 인한 주가 급락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가하면서 혼조세 마감(다우 +0.5%, S&P500 -0.7, 나스닥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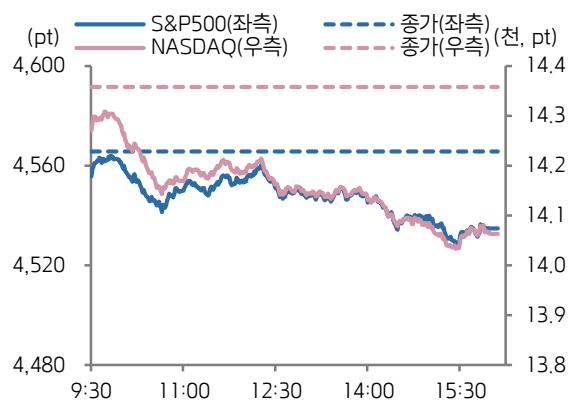
업종별로는 유트리티(+1.9%), 헬스케어(+1.7%), 에너지(+1.3%) 등이 강세, 경기소비재(-3.4%), 커뮤니케이션(-2.5%), 기술(-2.1%) 등이 약세. 테슬라(-9.7%)는 1분기 매출(249 억달러 vs 컨센 244 억달러)과 주당 순이익(0.91 달러 vs 컨센 0.82 달러)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기록했음에도, 가격인하 및 경쟁 심화에서 기인한 영업이익률(9.6%) 둔화, 3 분기 인도량 축소 우려 등으로 급락. 넷플릭스(-8.4%)는 2 분기 구독자수 급증(589 만명 vs 컨센 210 만명)에도 전체 매출액 및 구독자 당 매출 둔화 소식 등이 악재로 작용하며 급락.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8 만건으로 전주(23.7 만건) 및 컨센(24.2 만건)을 모두 하회. 반면 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는 175.4 만건으로 전주(172.1 만건) 및 컨센(172.9 만건)을 모두 상회하는 등 실업 지표 내에서도 혼재된 수치를 기록. 6 월 기준주택판매는 416 만건으로 전월(430 만건) 및 컨센(423 만건)을 하회했으나, 기준주택 중간가격이 40 만달러를 상회하면서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

7 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는 -13.5 로 전월(-13.7)에 비해 소폭 개선됐으나, 컨센(-10.0)은 하회. 세부항목 상 자본지출(8.6 vs 컨센 6.2), 비즈니스 여건(29.1 vs 컨센 10.0) 등은 개선됐으나, 신규주문(-15.9 vs 컨센 -10.0)이 둔화된 점이 7 월 필라델피아 제조업황의 부진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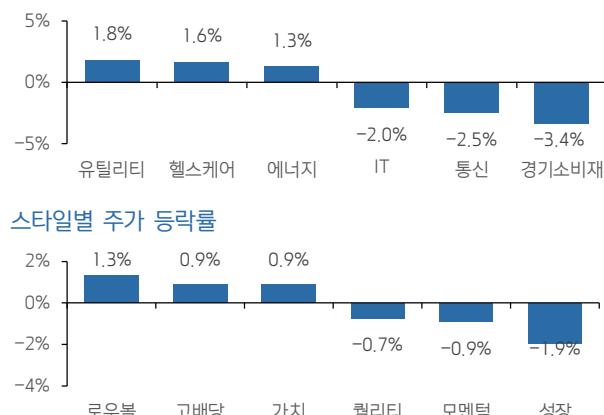
중국 인민은행은 1 년 만기와 5 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각각 3.55%, 4.20%로 동결(시장 컨센서스에 부합). 최근 발표된 성장률, 소비지표 부진 등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달 10bp 인하에 따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풀이.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00.23	-0.31%	USD/KRW	1,269.53	+0.3%
코스피 200	341.67	-0.42%	달러 지수	100.82	+0.54%
코스닥	931.60	+0.85%	EUR/USD	1.11	+0.04%
코스닥 150	1,488.70	+0.75%	USD/CNH	7.18	+0%
S&P500	4,534.87	-0.68%	USD/JPY	140.07	+0%
NASDAQ	14,063.31	-2.05%	채권시장		
다우	35,225.18	+0.47%	국고채 3년	3.582	+4.2bp
VIX	13.99	+1.67%	국고채 10년	3.610	+3.5bp
러셀 2000	1,967.16	-0.89%	미국 국채 2년	4.839	+7.3bp
필라. 반도체	3,663.85	-3.62%	미국 국채 10년	3.850	+10.2bp
다우 운송	16,265.22	-0.03%	미국 국채 30년	3.908	+6.9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73.73	+0.26%	WTI	75.65	+0.48%
MSCI 전세계 지수	697.89	-0.55%	브렌트유	79.65	+0.24%
MSCI DM 지수	3,029.70	-0.6%	금	2009.8	-0.49%
MSCI EM 지수	1,018.06	-0.15%	은	24.81	-1.64%
MSCI 한국 ETF	66.00	-1.67%	구리	381.75	+0.4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7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5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76.6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국내 2 차전지주들의 차익실현 압력 vs 신규 매수세 유입이 유발하는 수급 변동성
2. TSMC, ASML 2 분기 실적이 국내 반도체 관련주 투자심리에 미칠 영향
3. 테슬라, 넷플릭스의 주가 급락이 국내 성장주 수급 여건을 악화시킬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다음주 FOMC 까지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하여 경제지표 민감도가 커진 가운데, 견조한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지표, 부진한 제조업활동지수로 인해 긴축 우려 및 소프트랜딩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 또한 미국 6 월 기준 주택 판매는 mom 으로 감소했으나 중간가격이 22 년 6 월 이후 처음으로 40 만 달러를 상회한 점이나,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종료로 인해 밀, 대두 가격이 급등한 점이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존재. 이에 미 국채 10 년물 금리가 재차 3.8%대까지 급등하며 나스닥 하락 재료로 작용.

매크로 외적 요인으로 테슬라(-9.7%), 넷플릭스(-8.4%)의 급락과 7 월 24 일 예정된 나스닥 100 리밸런싱 등이 나스닥 변동성 확대에 기여.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구체적인 사양과 인도시점을 공개하지 않은 점과 추가 가격인하 가능성에 부각되었고, 넷플릭스 역시 가입자 수는 증가했지만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향후 가입자의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마진의 추가하락 가능성이 불거졌기 때문.

그러나 다우지수는 5 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2 분기 어닝시즌 자체는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스닥 조정은 3 거래일 연속 상승 및 단기 과열에 따른 기간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 인플레이션의 경우 주택가격의 일시적인 재상승이 주거비 항목을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1 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이며,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식품물가의 상승은 아직 우려할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 미 CPI 내 식품 물가의 경우 연초에 급락한 이후 mom 0.1%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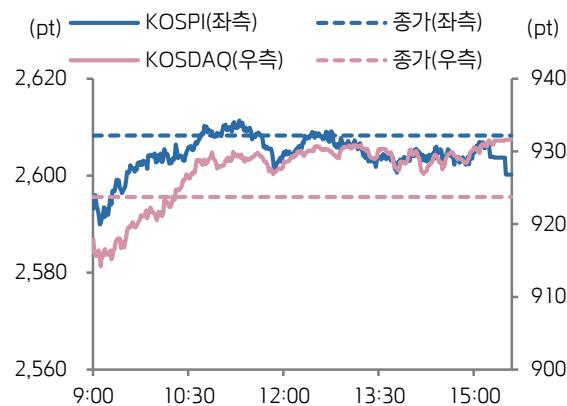
20 일(목) 국내증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테슬라, 넷플릭스 시간외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반도체 소부장, 이차전지 소재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세 유입되며 낙폭 축소 마감 (KOSPI -0.31%, KOSDAQ +0.85%)

금일에는 반도체 업종 투심 악화되며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최근 2 차 전지로 수급쏠림이 나타나며 일부 반도체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전일 재차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것은 그동안 AI 사업에 보수적이 태도를 유지했던 애플이 자체 AI 언어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엔비디아 GPU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재자 부각되었기 때문.

그러나 전일 실적을 발표한 TSMC 는 순이익과 매출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하고, 상반기에 181 억 1,000 만달러(약 22 조 6400 억원)를 투자했으며 작년 상반기 설비투자(167 억 2000 만달러)에 비해 8.3% 증가했다고 밝힘. 투자액 대부분을 파운드리 설비 증설에 투자액 대부분이 쓰였으며 업계 1 위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며 이는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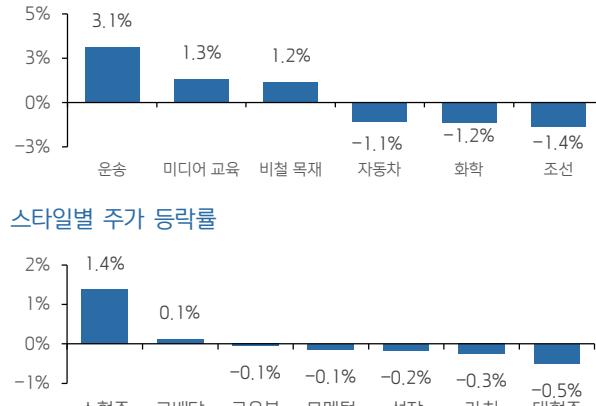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7일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동결한데 이어 1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동결하며 원화적 기조를 이어감.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을 위해 단기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또한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모기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감안할 때 하반기 중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유지. 7 월 말 정치국회의에서 부동산, 청년실업률 등 문제 대책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 국내 경기민감주, 리오프닝 관련주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